<찬불 게송 8>

青山疊疊彌陀窟 (청산첩첩미타굴) 첩첩이 겹쳐진 푸른 산은 아미타굴이고
蒼海茫茫寂滅宮 (창해망망적멸궁) 망망한 푸른 바다는 적멸궁이로다
物物拈來無罣碍 (물물염래무가애) 온갖 것을 잡아보아도 걸림이 없으니
幾看松亭鶴頭紅 (기간송정학두홍) 소나무 정자의 학머리가 붉은 것을 몇 번이나 보았는가

『석문의범』

〈8월 22일 토요법회 식순〉

✻ 1부 : 사시헌공
♪ 찬불가 연습

✻ 2부 : 불교대강좌
· 삼귀의
· 찬불가
· 찬불게송
· 청법가
· 법문 : 육조단경3 - 종호스님(불교대학장)
· 새신도 환영
· 합창단 음성공양
· 정근
· 발원문 봉독
· 사홍서원

〈초청강좌 안내〉

날짜	법회주제	법사
8. 29 (토)	육조단경	종호스님(동국대 불교대학장)
9. 5 (토)	개강법문	해주스님(정각원장)
9. 12 (토)	8주년 기념법회	일면스님(동국대학교 이사장)

〈정각원 불교아카데미 모집〉

구분	강좌내용		법사	강의실
입문반	불교입문		고금스님	법학관 B158
교리반	Ⅰ	초기불교 불교신행	정천스님	명진관 A103
	Ⅱ	대승불교 불교문화	명선스님	
漢詩반	한시(漢詩)강좌		동봉거사님	명진관 A105

매주 토요일 법회 후 13시 30분부터 진행합니다

을미년 인등을 밝히세요

각자의 원을 담은 공덕행(功德行)!
행복도량 정각원에 인등을 밝히세요~

⦿ 인등 : 1년 5만원 〈토요 사시기도에 축원해 드립니다〉
⦿ 신청문의 : 정각원 행정팀 ☎ 2260-3016~20

〈대각전 원불봉안 안내〉

염원을 담아 願佛 봉안하시고
기도성취와 동국대 발전에 함께 해주세요.

1人 1佛 - 100만원 이상(분납가능)

금년 봉안 법회는 12월 5일(토)에 봉행하오니 원불봉안에 많은 동참바랍니다!

보시동참

卍 8월 10일 불전 공양 卍
₩939,000원

해주스님, 곽원기, 구리시효자봉비어광장, 권복숙, 권혁채, 김광한, 김문자, 김봉주, 김원욱, 남대문효자손만두, 남창강, 노영수, 박성진, 박세협, 백광호, 백영태, 안기영, 안대준, 윤호문, 이기형, 이봉자, 이성부, 이수준, 이해운, 정보현, 주호빈, 주호성, 한영욱
(그 외 무기명 보시 불자님)

卍 법회경비 집행내용 : 교비 지출 卍
₩1,024,900원
(법사비, 토요법회 촬영과 편집비, 법보지 인쇄비 등)

卍 인등 공양 卍
노영수, 노은정, 박성준, 정상화

卍 공양 보시 卍
❖ 대 중 공 양 : 무기명 불자님
❖ 불단 떡, 과일 : 정각원 신도회

✿부처님께 올리는 여섯 가지 공양(향, 초, 차, 과일, 꽃, 쌀)에 신도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토요법보 300호 발간〉 축하 이벤트!

정각원 토요법회 신행의 길라잡이! 토.요.법.보.

그동안 법보를 애독해 주신 불자님들께 감사드리며
토요법보 3호, 33호, 133호, 233호, 293호 중
보관하고 계신 법보를 사무실로 갖고 오시면
선착순 33분께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소득공제, 기부금영수증을 원하시는 분은 보시봉투에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를 딱 한번만! 정확히 기입해 주세요.

정각원 토요법보

信心장한 불자 됨이 불교의 희망입니다.

불기 2559(2015)년 8월 22일 제300호(週刊)

욕망의 그물이 씌워지고, 애욕의 덮개가 덮이고, 어리석음이 그 마음을 결박시켜 버리면
그것은 물고기가 그물에 걸려든 것과 다를 바 없다.
[법집요송경]

중국 선종의 初祖 달마대사

◉ 중국 선종의 1대 조사 달마대사(인도불교 28대 조사)입니다. 중국에 불교를 포교하고 중국 선종을 창시하였으며, 좌선을 통하여 부처님 가르침 사상을 실천하는 새로운 선불교를 강조하였습니다. 현존하는 달마도 가운데 대표적인 이 작품은 김명국의 〈달마도〉로 17세기 제작,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있습니다. 정각

『壇經』의 수행법

종호스님

(동국대 불교대학장 겸 불교대학원장)

1. 自性自度

* 한없는 중생을 모두 다 제도하기 서원한다는 것은 혜능이 그대들을 제도한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의 중생을 각각 자신의 자성으로 스스로 제도하는 것이다. 어떤 것을 자신의 성품으로 스스로 제도한다고 하는 것인가? 자기 육신 속의 삿된 견해와 번뇌와 어리석음과 미망이 본래의 깨달음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 바른 견해로 제도하는 것이다. 이미 바른 견해인 반야의 지혜를 깨달아 어리석음과 미망을 제거하면 중생들이 각각 스스로 제도한 것이다. 삿됨이 오면 바름으로 제도하고 미혹이 오면 깨달음으로 제도하며, 어리석음이 오면 지혜로 제도하고 악함이 오면 착함으로 제도하며, 번뇌가 오면 보리로 제도하나니 이렇게 제도하는 것을 진실한 제도라고 한다.

2. 一念便悟 - 단경 수행법의 요체는 일념을 깨닫는 것. 외형적으로는 선지식의 가르침에 의한 言下便悟的 성격을 띠고, 구조적으로는 일순간에 완벽히 체득하는 頓悟의 모습을 띠나 실제 수행법으로는 한 생각을 깨닫는 一念便悟. 한 생각을 깨달으면 중생이 곧 부처.

* 깨닫지 못하면 불이 중생이요, 일념을 만약 깨달으면 곧 중생이 부처이다. 그러므로 일체 만법이 모두 자신의 마음속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不悟卽佛是衆生 一念若悟 卽衆生是佛 故知一切萬法 盡在自身心中)
* 한 생각(一念)을 수행하면 법신이 부처와 같다. 선지식들이여, 번뇌가 곧 보리이니 이전 생각에 사로잡혀 미혹하면 범부요, 뒷생각에 깨달으면 곧 부처이다.
  (一念修行 法身等佛 善知識 卽煩惱是菩提 捉前念迷卽凡 後念悟卽佛)
* 一燈能除千年闇 一智能滅萬年愚 莫思向前 常思於後 常後念善 名爲報身 一念惡報 却千年善止 一念善報 却千年惡滅

3. 定慧의 均等 - 단경의 수행 원리는 定慧體一不二, 정과 혜는 등과 등불의 관계.

* 선지식들이여, 나의 법문은 정과 혜로 근본으로 삼나니 미혹하여 정과 혜가 다르다고 말하지 말라. 정과 혜는 體가 하나요 둘이 아니다. 정은 곧 혜의 體이며 혜는 정의 用이니, 혜가 발휘될 때에는 정이 혜 속에 있고, 정이 발휘될 때에는 혜가 정 속에 있다. 선지식들이여, 이 의미는 정과 혜가 함께 있다는 것이니, 도를 배우는 사람은 먼저 정이 먼저 있어야 혜가 발휘된다거나 혜가 먼저 있어야

정이 발휘된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정과 혜가 각기 다르다는 견해를 갖게 되면 이는 법에 두 개의 相이 있는 것이 된다. 입으로는 善을 말하면서 마음이 不善하면 혜와 정이 함께 하는 것이 아니요, 마음과 입이 모두 善해야 안팎이 똑같아 정과 혜가 곧 함께 하는 것이 된다.

4. **돈오(頓悟)와 돈수(頓修)** - 혜능선의 대표적 특징. 돈오는 시간적으로는 찰나, 내용적으로는 완벽함. 돈수는 수행의 찰나적 완성으로 돈오가 내용적 완벽함을 담고 있어 자연 돈수. 따라서 혜능선의 입장은 돈오 = 돈수.

* 나는 오조 홍인화상의 처소에서 한번 듣고 그 말끝에 크게 깨달아 진여의 본성을 단번에 보았다. 그러므로 이 교법을 뒷세상에 유행시켜 도를 배우는 사람들로 하여금 보리를 단박에 깨쳐서 각기 스스로 마음을 보아 자기의 성품을 단박에 깨치게 하고자 한다.(頓悟)
* 반야가 일어나 관조되면 **찰라** 간에 망념이 **모두** 없어질 것이니 이것이 곧 자신의 참된 선지식이다. 한번 깨달으면 곧 부처를 알게 된다.(當起般若觀照 **刹那**間 妄念**俱滅** 卽是自眞正善知識 一悟卽知佛也) - 돈오란 순식간임과 동시에 완벽하게(頓修) 깨닫는 것.

※ 돈과 점은 수행자의 근기에 따라 분류되는 것. 이치적으로는 돈점이 없으나 사람에 따라 돈점이 있으며 하근기는 점, 상근기는 돈.

* 선지식들이여, 법에는 단박(頓)과 점차(漸)의 구별이 없으나 사람에게는 영리하고 우둔함이 있으니 미혹하면 점차에 계합하지만 깨달은 사람은 단박에 닦는다.(頓修)
* 어떤 것을 점과 돈이라고 하는가. 법은 한 가지이나 견해에 더디고 빠름이 있으니 견해가 더디면 점이요 빠르면 돈이다. 법에는 돈과 점이 없으나 사람에게 영리함과 우둔함이 있어 돈점이라고 한다.

※ 오직 돈오?

- 설법은 헤아릴 수 없으나 합하고 벗어남이 모두 하나로 귀일하니 번뇌의 어두운 집속에서 항상 지혜의 해가 떠오르게 하라. … 항상 자신의 허물을 드러내어 도와 더불어 합당하게 하라. … 만약 간절히 도를 찾고자 한다면 행동을 바르게 하는 것이 곧 도이요 … 만약 진실한 수행자라면 세간의 어리석음은 보지 않으니...
- 도를 배우는 사람들은 노력하고 애써야 한다. 대승의 가르침을 공부하며 허망한 견해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 생각 생각마다 덕을 행하며, 평등하고 진솔한 마음을 가지면 공덕이 가볍지 않을 것이니 항상 공손하게 행동하라.

5. **선지식과 함께** - 반야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본래 스스로 갖추고 있지만 반연 때문에 마음이 미혹해져 스스로 깨닫지 못하니 모름지기 대선지식의 지도를 받아 견성해야 한다.